

# 폭염에 콘크리트 품질관리 비상

### 건조수축 진행으로 균열 쉽게 발생... 대부분 건설현장 조치 마련하지 않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가 건설현장 레미콘 양생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레미콘 타설시 수화반응이 미쳐 이루어지지 전에 태양열에 의한 급격한 수분증발로 미경화 되는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비상이 걸렸다. 콘크리트의 균열은 설계하중, 외적 환경의 원인 재료특성, 배합조건 및 시공적인 요인에 의하여 많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여름철에는 콘크리트가 뜨거워져서 수분이 지나치게 빨리 마르면 표면이 건조수축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균열이 쉽게 발생한다. 이에 콘크리트 타설후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면에 부직포를 덮고 스프링클러 또는 호스 등

을 이용해서 물이 마르지 않게 계속 뿌려 줘야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온도상승에 따른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콘크리트에 이용되는 골재도 문제다. 30℃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안되지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는게 일반적이다. 또 서중콘크리트로 타설할 경우 보통 콘크리트와 비교해서 골재를 장시간 뜨거운 곳에 있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대부분 골재가 일광차폐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사용된다고 하지만 무더운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

정이다. 그렇다고 이른 아침이나 야간 작업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레미콘 차량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하는 8.5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다가 운전자들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인지라 이들이 투입되는 현장이 많을 경우 심불리 폭축할 수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건설현장은 이래저래 쉽지 않다. 콘크리트 양생에 따라 소성수축균열 슬라브 관통 균열 등 발생시기가 많다"면서 "최소 5일 이상 수분증발과 콘크리트 온도 상승억제를 위해 PE필름 부착이나 부직포 등을 덮고 호스나 스프링클러로 계속 살수 습윤상태를 유지해야만 되나 현장에서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햇 고추가 나왔어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이 올려 첫 생산된 전국 유명산지의 햇 건고추 및 태양초를 선보이고 있다.

## 무더위에 '프로즌 푸드' 열풍

(냉동식품)

### 폭염특보 일주일 동안 147.2% 수요 급증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무더위에 시원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에 따라 식품업체들이 폭염특수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1~7일 판매된 품목 중 냉동디저트가 17.7%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세븐일레븐의 지난달 컵얼음 매출은 지난해 대비 88.9% 증가했다. 이는 폭염특보가 이어진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무려 147.2%가 급증한 수치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디슈머처럼 취향에 맞게 얼려먹을 수 있는 아기 간식부터 얼려서 식감을 차별화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선보이며 여름철 차가운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매일유업 맘미일의 '요미요미 야채와과일'은 천연과즙과 야채즙으로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슬러시 타입의 과일야채음료다. 당근, 단호박, 양배추, 피망, 토

마토 등 8종 이상의 컬러별 야채와 과일로 가득 채운 영양 간식이 다. 슬러시 타입의 몽글몽글 씹는 느낌으로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설랑 색소, 향료를 첨가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으며, 식약처의 어린이 기호식품인증까지 획득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짜먹기 편한 스파우트 파우치에 담겨 있어 그대로 먹기에 불편함이 없으며 무더운 여름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얼려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요미요미 야채와과일'은 얼려서 먹는 다양한 방법의 여름간식으로 아기와 엄마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며 "또한 얼린 후 갈아서 빙수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아이에게 시원함과 영양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도내 경제협력권 육성사업 참여기관·기업 모집

**친환경자동차·에너지부품·바이오활성소재 부품 등 3개 분야 신청 접수**

전북테크노파크는 2016년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 지역주도형 R&D과제 참여기관과 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경제협력권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에너지부품, 바이오활성소재 부품 등 3개 분야다. 기관이나 기업이 신청하면 전북지역사업평가단을 통해 선정한다. 과제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건을 확인하면 된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신광영기자

## 웰빙 트렌드에 고구마 말랭이 등 첨가물 없는 간식 '인기'

고구마 말랭이, 군밤 등 원물간식 시장이 뜨고 있다. 화학첨가물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고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늘면서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원물 그대로의 간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원물 간식 시장 규모는 2014년 생산액 기준 6700억원대로, 2010년 3300억원대에서 2배 이상 성장했다. 현재는 시장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물간식 수입액 역시 2010년 1억 1000만달러에서 2014년 2억2588만 달러로 4년새 2배 가량 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수입 원물간식 중에서는 견과류가 품이 86.2%로 가장 많았고 건조과일류가 13.8% 등이었다. 대상 청정원은 고구마, 밤, 감 등 원물을 그대로 말린 '쥬엔 리얼' 제품과 바삭한 식감을 가미한 '쥬엔 크리 스피' 등을 출시하며 원물간식 시장을 키우고 있다. 대상은 완두와 대추, 치즈, 사과, 프룬호두, 무화과호두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제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올가나기도 최근 홈페이지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쫄쫄한 군고구마'를 리뉴얼해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으로 론칭, 인기몰이에 나섰다. 쫄쫄한 군고구마는 2014년 출시 이후 매년 3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였으며, 6월 기준 누적 판매량 170만 개를 나타냈다. 동원F&B 역시 지난해 4월 고구마를 말려 쫄미와 식감을 살린 자연 한 입 고구마를 출시, 원물간식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빠른 성장세를 보여준 원물간식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시스

## 도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접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으로 전북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에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은 '외국어 E-카탈로그 및 종이 카탈로그', '글로벌 B2B 마켓 등' '외국어 포장디자인'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분야를 업체가 자율 선택해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500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5일까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 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JB 창의적 진로체험 실시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12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5회 JB 창의적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도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 및 설계하는 경험을 제공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요리전문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직업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을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김수경 학생(전주중남중 2학년)은 "현재 꿈꾸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생활습관과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새만금홍보관 카페테리아 오픈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태)은 새만금홍보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새만금홍보관 3층에 10평 규모의 카페테리아를 16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새만금홍보관은 2012년 7월 새만금진시관을 재건축해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부지 13,784㎡ 규모의 전시시설로 개관한 뒤로 연 46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일부 관광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만금사업단에서 시설의 용도 변경을 추진,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카페테리아를 열게 되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허브차와 빵양차, 오디쥬스 등 다양한 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새만금홍보관이 카페테리아 신설로 인력한 휴식처를 제공하며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 편의점CU-가맹점주 상생협약

편의점 CU가 건강한 편의점 가맹점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CU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 10여명과 BGF리테일 박재구 사장 및 임직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CU는 이날 협의회와의 체결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들과 순차적으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뉴시스

#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